

郭興의 삶과 詩

李 九 義*

〈차 례〉

- | | |
|--------------|--------------|
| 1. 問題 提起 | 4. 自然美와 歸巢意志 |
| 2. 遊興 文學의 精髓 | 5. 詩風과 그 影響 |
| 3. 詩와 繪畫의 調和 | 6. 마무리 |

1. 問題 提起

郭興(興)은 하급아전 출신으로 상서우복야 참지정사에까지 오른 郭尙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고려 문종 12년(1058년)에 나서 인종 8년(1130)에 걸쳐 생존했다. 그의 자는 夢得, 본관은 淸州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열중하였다고 한다. 그는 과거에 급제한 뒤에 궁내에 배속되어 閤門祗候로 있다가 洪州牧使로 外職에 나갔다. 그가 홍주목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성 바깥 시내 가에 작은 암자를 짓고 장계초당이란 이름을 붙이고 공무의 여가만 있으면 매양 그곳에 가서 휴식을 하곤 했다. 그리고 홍주목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예부원의랑으로 다시 내관이되었다가 金州로 가서 은거했다. 그는 예종이 동궁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1105년 예종이 즉위하자 예종은 그를 불러 궁중 순복전에 기거하게 하고 선생이라 불렀다. 그는 烏巾과 鶴氅衣를 하고 예종의 좌우에서 담론하고 창화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 金門羽客이라 했다고 한다. 그가 물러날 때 왕이 城

*영남대학교 강사

東의 若頭山에 山齋를 짓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하자 그는 호를 東山處士라 짓고 거처하는 방을 虛靜堂, 書齋를 養志齋라고 했는데 예종이 친히 현판을 써주었다고 한다. 그 뒤 왕이 산책을 나오면 자주 그곳에 들러 서로 시를 읊으면서 즐겼다. 인종 8년(1130) 72세의 나이로 그가 죽자 왕은 정지상으로 하여금 山齋記를 짓게 하고 비를 세웠으며 眞靜이라는 諡號를 내렸다.

그의 작품으로는 『東文選』에 「東山應製」라는 제목 밑에 五言排律과 七言絶句 각 한 수씩이 있다. 그리고 七言律詩인 「贈淸平李居士」, 七言絶句인 「隨駕長源亭上登樓晚眺有野叟騎牛傍溪而歸應製」, 「淸謫閣親賜雙角龍茶」가 있다.

지금까지 광여에 대해 고찰한 논문은 한편도 없다. 그에 대한 고찰은 한문학사나 국문학사에 단편적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본고에서는 광여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의 詩世界와 詩風은 어떠하며, 또 어떠한 세계관에서 그러한 시풍의 시가 창출되었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과 그의 삶은 통해서 생성된 그의 작품들,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을 두루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의 목차에 따라 본고를 진행해 나가기로 한다.

2. 遊興 文學의 精髓

광여의 시 가운데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은 시를 통하여 유흥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광여는 즐기 위하여 시를 지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다음의 사실을 보고 나서 본 항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한다.

①을미 10년(1115) 9월 신미일, 달밤에 왕이 미복으로 처사 광여가 있는 순복전 청심대에 가서 주연을 베풀하고 근신들과 함께 글을 강론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헤어졌다.¹⁾

1) “辛未王乘月微行 處士郭輿所居純福殿淸心臺 置酒與近臣論文 至曉乃罷”『高麗史』世家 卷第14.(서울: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影印本, 上, p.279).

② 병신 1년(1116) 사월 병인 일에 왕이 상안전(常安殿) 뒤 화단에서 처사 곽여를 불러 보고 친히 주식을 권하였다. 이 때 갑자기 동남쪽에 흰 구름 두어 조각이 뜨고 한 쌍의 학이 배회하였다. 그것과 관련하여 곽여에게 시를 짓게 하고 왕도 그 시에 답하였다.²⁾

③ 무진 일에 모든 종친과 곽여를 불러 주연을 베풀고 왕이 세 편을 지은 다음 곽여에게 명령하여 회답시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³⁾

④ 병자 일에 왕이 관풍정(觀風殿)에 가서 태조 이전 행재소(왕이 지방에 나와 거처하던 곳)를 둘러보고 그 길로 구제궁에 갔다가 저물 무렵이 되어 영명사 동각(東閣)으로 가서 모든 종친과 곽여를 불러서 주연을 배설하고 시가를 화답하였다.⁴⁾

이상은 예종이 신하들과 술과 시를 주고 받으면서 흥을 즐기는 것 가운데 곽여와 관계 있는 것을 『고려사』 「세가」(권14)에서 뽑은 것이다. 곽여가 그의 나이 57세에서 58세 되던 해의 일을 『고려사』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나이 72세에 죽었으니, 그가 죽기 16~17년 전의 일이다. 임금과 신하가 별로 거리낌없이 서로 시를 주고받고, 또 술잔을 돌리며 서로 권하니 한편으로는 임금과 신하가 격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로 말미암아 정치는 저절로 문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금과 임금을 가까이하는 신하가 술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를 더욱 밀착하는 동안 이에 들지 못한 신하들은 자연히 소외감이 들 것이고 이러한 감정이 지속되면 불만이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편도 가르지 말고 무리도 짓지 말라(無偏無黨)’고 했듯이 나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임금은 최소한 공평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편을 짓게 되니 정치가 잘될 리가 있겠는가? 곽여가 활동했던 시기, 특히 그의 만년에는 이처럼 임금과 신하가 한데 어우러져 잔치를 베풀고 시를 주고 받

2) “丙寅召見處士郭興賜坐於常安殿後花壇 親賜酒食 時忽見東南方有白雲數片 其中雙鶴徘徊 因命興賦詩 王亦和之” 위의 책, p.280.

3) “戊辰召諸王及郭興置酒 王製詩三篇 命興和進” 위의 책, 같은 곳.

4) “丙子行觀風殿 巡視太祖行在所 遂御九梯宮 及晚移御永明寺東閣 召諸王及郭興置酒唱和” 위의 책, p.282.

은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다음의 「東山應製」라는 시는 당시의 임금이었던 예종과 광여의 관계가 어떠했던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何處難忘酒	어느 곳에서나 술 잊기 어려워
虛經寶輦廻	임의 수레 헛되이 돌아가셨네
朱門追小宴	대궐 집에서는 조출한 잔치 좇았고
丹竈落寒灰	신선의 부엌에는 잔재만 날리었네
鄉飲通宵罷	민가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天門待曉開	새벽에나 열리는 궁문을 기다려
杖還蓬鳥徑	지팡이는 선경의 길 되돌아갔고
屣惹洛城苔	나막신으로 장안 이끼 밟았네
樹下青童語	나무 밑에서는 청의 동자 이야기
雲間玉帝來	구름 사이 옥황상제 내려오셨다네
鼈宮多寂寞	자라 궁전에는 쓸쓸함도 많아
龍馭久徘徊	임금의 수레 한동안 배회하다
有意仍抽筆	품은 회포 붓을 잡아 남기고
無人獨上臺	사람 없는 누대 혼자 오르셨네
未能瞻日月	해 달 같은 용안은 뵈지 못하고
却恨向塵埃	진 티끌 속 거닐었음이 한스러워
搔首立階下	섬돌 밑에서 머리만 긁적긁적
含愁傍石隈	바위 문간 곁 수심만 삼켰네
此時無一盞	이런 때에 술 한잔이 없다면
豈慰寸心哉	이내 마음 무엇으로 위로하리요.

오언 배율체의 이 시는 묘사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서술성이 강하다. 어느 곳에서나 술을 잊기는 어렵다고 하여, 사람 곁에는 항상 술을 둔다고 했다. 서정적 자아, 즉 광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술을 멀리하지 못해서 한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임금인 예종은 광여의 집을 찾아왔던 것이다. 예종이 비록 광여를 찾아왔으나 주인이 없는 집이라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지경이어서 그만 궁궐로 돌아가고 말았다. 시인은 대궐 집의 잔치에서, 또 민가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이 되어 자연의 거처에

오니, 임금이 왔다가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려사』 「열전」을 보면, “하루는 왕이 미행으로 광여의 산재를 방문했는데 마침 광여가 성안으로 들어가 집에 없었다. 왕은 그를 만나보지 못한 섭섭한 마음으로 한참 배회하다가 시를 지어서 벽에 붙이고 돌아갔다. 그 뒤 또 산재를 방문하였을 때 왕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칭송하는 구호를 읊었다. 대체 그에 대한 왕의 총애가 이리했다.”라는 말이 나온다. 예종이 광여를 찾아간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이 찾아 왔는데 집에 머물지 못해 임금을 맞지 못했으니 그 송구스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도 임금이 한 수의 시를 지어서 남겨놓고 갔으니 그 송구스러움의 깊이는 더할 것이다. 그러니 여덟째 연과 아홉째 연에서처럼 읊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해와 달같은 임금님을 뵈지 못하고, 티끌 속을 거닐었음이 한스러워 섬돌 밑에서 머리만 굽적거리다가 문간 곁에서 수심만 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럴때 또 술 한잔이 없다면야 그 무엇으로 시인 자신의 심정을 위로하겠는가?

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종이 먼저 광여를 찾아갔으나 그를 만나지 못하고 시를 지어 벽에 붙이고 돌아갔다는데 그 시의 제목이 바로 「何處難忘酒」이다. 이 「하처난망주」라는 말은 예종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중국 唐나라 때의 詩人인 白樂天의 「勸酒」 14首⁵⁾ 가운데 前 7首의 詩題이다. 따라서 예종이나 광여는 당나라 백락천의 말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종이 지은 「何處難忘酒」의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何處難忘酒	어디서 술 잊기 어려워 (머무는지)
尋眞不遇酒	나는 여길 찾아 못 만나고 돌아가네

5) 백락천의 「勸酒」라는 제목 아래 前7首의 제목은 「何處難忘酒」요 後7首의 제목은 「不如來飲酒」인데, 그 서문에는 “내가 동도에서 분질할 때 한가한 날이 많아서 간간히 술을 마셨다. 술이 취한 뒤에는 문득 읊조렸는데 사장이 없어서 노래부르고 시를 읊조리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했다. 한 생각이 날 때마다 한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14편이 되었다. 이 14편 모두 술을 주제로 해서 스스로 술을 권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술 잊기 어려워’와 ‘와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못하다’로 시 제목을 붙였다(予分秩東都 居多暇日 間來輒飲 醉後輒吟 苦無詞章不成謠詠 每發一意則成一篇 凡十四篇 皆主於酒 聊以自勸 故以何處難忘酒 不如來飲酒命篇).”라고 하여 시의 제목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하처난망주」라는 제목 밑의 7수의 시 가운데 그 첫째 것만 들어본다. 「何處難忘酒 長安 喜氣新 初登高第日 乍作好官人 省壁明張榜 朝衣穩稱新 此時無一盞 爭奈帝城春」 佐久 節註解, 白樂天全詩集, (日本 東京: 誠進社, 1978.7.) 제4권, pp.1~13 參照.

書窓明返照	서창엔 석양이 되비치고
玉篆掩殘灰	향연(香煙)은 스러지는 재를 가리웠네
方丈無人守	정침(正寢:주인 방)에는 지키는 이 없고
仙扉盡日開	해는 저물어도 선비(仙扉)만 열려 있네
園鶯啼老樹	동산의 피꼬리는 고목에서 노래하고
庭鶴睡蒼苔	뜰 앞의 학은 푸른 이끼 위에서 조네
道味誰同話	도의 맛 누와 함께 이야기할까
先生去不來	선생은 가고 오질 않는데
深思生感慨	생각할수록 감개가 깊으니
回首重徘徊	머리 돌려 또 한 번 배회하네
把筆留題壁	붓을 잡고서 벽에다 시를 써두고서
樊欄懶下臺	난간을 잡고 느릿느릿 대에서 내려오네
助吟多態度	시를 읊는데 도움되는 경치 많으니
觸處絕塵埃	부닥치는 곳마다 티끌 한 점 없구나
暑氣蠲林下	더위는 숲 속에서 스러지고
薰風入殿隈	향긋 바람은 집 밖에서 불어오네
此時無一盞	이런 때에 술 한 잔이 없다면
煩慮滌何哉	괴로움을 어디에다 달랠까 ⁶⁾

이 시도 역시 위의 광여의 시와 같이 서술적이다. 서정적 자아인 예종이 광여에게 이야기하듯 시를 읊조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연부터 먼저 보면, 바로 시간적 배경이 나타난다. 시간적 배경은 해가 서산에 넘어갈 저녁 무렵이다. 사실 저녁이라는 말 자체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하다. 그런데다가 첫째 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종이 그의 술 친구인 광여를 찾아왔으나 광여는 집에 없는 것이다. 이 두 연에서 보면, 시간적 배경과 사람의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다. 셋째 연과 넷째 연에서는 바로 광여의 집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둘째 연의 對句에서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온다고 했는데 사실 저녁 연기가 올라올 때쯤이면 으레히 집 주인이 집에 있어야 될 것이나, 주인은 온데 간데 없는데 사립문만 열려 있다. 넷째 연에서 보면, 앞의 희망적이지 못한 상황이 태평한 상황으로 반전된

6) 李仁老『破閑集』卷中.

다. 동산의 꿩꼬리가 고목에서 노래하고, 뜰 앞의 학이 푸른 이끼위에서 즐기고 있다고 했으니, 아무런 사심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요, 도인 것이다. 이러한 자연현상의 전개는 곳에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시인은 한없이 쓸쓸하기만 하다. 이러한 시인의 쓸쓸한 심경이 다섯째·여섯째 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꺾여가 예종에게 강론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종이 꺾여를 선생이라고 했으니 상당히 존경을 하고 있는데, 꺾여가 집에 없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니 하는수 없이 글이라도 남겨서 꺾여에게 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왔다가 간다는 글을 남겨놓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사방을 둘러보니 주위의 경관이 맑고 맑아 시가 흘러나오게 한다. 비록 계절이 여름이지만 시간적으로는 해저무는 저녁이고, 상큼한 바람이 불어와서 덥지 않으니 이럴 때는 술이 생각날 만하다. 이처럼 이 시는 첫째 연과 마지막 연은 바로 시인 자신의 심경을 서술하고 있고, 둘째 연의 출구는 자연 현상을 맺구는 인위적인 현상을 묘사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셋째 연의 출구는 인위적인 현상을 맺구는 자연과 인위적인 현상을 결부시키고 있다. 그리고 넷째 연은 자연 현상만을 내세워 다음 연의 자신의 심정을 더욱 쓸쓸하게 나타내려고 했다. 사실 이 시 전체를 보면 서술적이나 간간이 서정적 자아인 예종 자신의 심경을 자연현상과 결부시켜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

꺾여가 비록 문종 때 처음 태어났지만 그가 주로 활동한 시기는 예종 때이다. 고려 16대 임금인 예종(1079 ~ 1122)은 시를 무척 즐겨 지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시를 남겼다고 한다. 『고려사』에 제목이 전하는 것만 해도 20여 수나 된다. 그는 시를 혼자 짓기만 했던 것도 아니다. 그는 신하들과 和唱하기를 즐겼다. 예종이 신하들과 격의없이 和唱을 하던 일은 후대 문인들이 두고두고 흠모하는 바이다. 이인로는 불운한 시대에 태어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통탄하면서, 예종 시절과 같은 전성기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규보는 예종이 신하들과 주고 받던 작품을 모아 『睿宗唱和集』을 편찬하고⁷⁾, 그 발문에 예종은 총명함을 하늘에서 타고

7) 李奎報가 지은 『東國李相國集』 가운데 「睿宗唱和集跋尾」라는 글에, 예종은 선비를 좋아하여 淸燕閣을 특별히 놓고 날마다 학사들과 전적을 각론하고 궁중의 선비들로 하여금 耄耋을 밝혀 두고 시를 짓게 했으며(刻燭賦詩), 이렇듯 지은 시들을 모아 『예종창화집』이라 했다고 한다. 더욱이 예종과 창화한 신하 가운데 꺾여가 대표적(常與詞人逸士若郭興等賦詩著詠)이라는 기록이 있다. 『東國李相國集』全集卷21 (韓國文集叢刊(1), 서울: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1989.), p.514. 參照.

나 신명과 같은 수법을 발휘하고, 태평의 경사를 누렸다고 찬양했다. 예종 때가 실제로 태평성대는 아니었다. 지배층 상호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하층민에 대해서 횡포를 자행하는 몇몇 문벌귀족의 독세로 통치질서가 위태롭게 되었으면서도 아직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을 따름이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자점의 난이 일어난 다음 임금인 인종 때와는 사정이 달랐으나, 예종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어느 정도의 왕권 강화를 통해 모순을 완화시키는 정도였으며 기울어 가는 왕조를 다시 일으킬 방안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종이 시를 화창하고 풍류를 찾는데 지나칠 정도로 열중했던 것은 문제의 소재는 다소 파악했으나 해결은 하지 못하는 고민의 발산이라고 볼 수 있다.⁸⁾

이처럼 그 당시에 유흥문학이 왕성했던 것은 바로 그 당시의 임금들⁹⁾이 詞章을 숭상했고, 그와 더불어 사장이 크게 유행했기 때문이다. 이 유흥문학은 11~12세기의 역사적 상황과 삶의 현실을 이탈하여 이미 확보된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君臣이 향락적 삶을 추구하던 퇴폐적 문학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광여의 시에 유흥을 통한 향락적인 면모가 보이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봐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고려사』 「열전」을 보면, “그는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고 홍주에 있을 때 기생과 친했는데 그가 돌아올 무렵에 그 기생에게 약을 먹인 다음 신선이 되어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서울에 데려와 같이 살다가 마침내 그 기생이 늙어서 볼품이 없자 제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 구절로 미루어 봐도 광여가 얼마나 향락에 빠졌는지 알 수 있다.

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서울:지식산업사, 3판 3쇄, 1994.8.) p.398.

9) 고려초기에는 문학을 애호하는 군왕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종 이외에 毅宗(1127~1173, 재위 1146~1170)과 明宗(1131~1202, 재위 1170~1197)이 있다. 의종의 작품으로는 『高麗史』에 「仁智齋春帖字」라는 제목 밑에 두 수의 시가 있으며, 명종의 작품으로는 그의 大叔이었던 僧統 寥逸이 乞退하는 시에 和答한 시가 두 수 남아 있다.

3. 詩와 繪畫의 調和

옛 시인이 지은 시, 그 가운데도 자연을 읊은 시는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감상할 때의 느낌을 받는 데 광여의 시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먼저 그가 지은 「隨駕長源亭 上登樓晚眺 有野叟騎牛傍溪而歸 應製」라는 긴 제목의 七言絶句를 들어서 시와 그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太平容貌恣騎牛	태평한 용모에 편안히 소를 타고
半濕殘霖過壠頭	부슬비에 반쯤 젖어 밭둑을 지나네
知有水邊家近在	시내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 듯
從他落日傍溪流	지는 해에 개울을 끼고 가네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서정적 자아, 즉 시인의 눈에는 시골 늙은이가 태평스러이 소를 타고 밭둑을 지나가는 광경이 나타난다. 시인의 눈에 비친 늙은이의 위치는 밭둑 길이다. 그것도 시내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는 길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옥망의 피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해가 지려고 하는 저녁 무렵에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한가로이 소를 타고 지나가는 늙은이의 모습에서 한없이 소박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대하는 듯하다. 『靑丘風雅』(卷6)에서 估畢齋 金宗直은 이 시에 대하여 '卽景如畫'라고 평하고 있다. 점필재가 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詩中有畫'라고 할 수 있다. 즉, 시 속에 그림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시와 그림이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시와 그림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다. 시를 읊조린 것이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니, 비록 不可視的인 시이지만 그 이미지가 얼마나 회화적인가를 알 수 있다.

'詩中有畫'의 기법은 광여가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다. 이 기법을 처음 시도한 사람은 바로 중국 당나라 때의 南宗畫, 즉 文人畫의 창시자인 王維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왕유는 쑤나라의 도연명을 상당히 흠모했다. 바로 전원 생활을 즐거움으로 삼고, 자연을 완상한 면에서 그렇다. 특히 도연명은 벼슬을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富貴에 현혹되지 않았다. 梅堯

臣(1002~1060) · 歐陽修(1007~1072) · 林逋(967~1028)와 같은 사람들은 왕유의 영향을 얼마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의 시인들은 시와 아울러 그림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많았다. 즉, 김부식 · 정지상 · 차원부 · 윤언문 · 이기 · 왕면 · 정서 · 이인로 · 이전 · 안치면 · 정홍진 · 김군수 · 이세현 · 정몽주 등이다.¹⁰⁾ 또 고려시대에는 도화원이라는 畵工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기도 했다. 이처럼 광여가 생존한 시기를 전후해서 시인 가운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많았으며, 이러한 양자, 즉 시와 그림을 겸한 기법이 시인들 가운데 유행했다고 하겠다. 기록에는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광여 또한 시와 그림을 조화시켰다고 하겠다. 이처럼 그림과 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고려 시대의 문풍이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처럼 한 가지 예술에만 얽매인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접 분야의 예술 영역들이 서로 화합하여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예술이 되는 것이다. 문학도 일종의 예술이라고 한다면, 이는 광여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그만큼 문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였다. 예종이 바로 고려시대 문학에 탐닉한 임금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인로가 지은 『파환집』을 보면, “예왕(예종)은 더욱 유생을 중히 여겨 격년(隔年)마다 친히 현량을 선발하였는데 먼저 바치는 권자를 열람하여 그 재주를 알아보았다.”¹¹⁾고 하고 있다. 이 기록으로만 미루어 봐도 광여가 모셨던 예종 조에는 문풍이 대단히 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종 이전에도 물론 글 잘하는 선비를 숭상했던 것이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시를 기본으로 한 문학이 유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인들을 바탕으로 한 그림이 유행하여 이 두 가지 예술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예술 분야를 창출하게 된 것이 바로 詩中有畵의 기법이 아니겠는가?

4. 自然美와 歸巢意志

광여는 앞의 제1항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는 예부원의랑을 끝으로 치사하

10) 吳世昌의 『權域畵徵』(1928), 高裕燮의 『朝鮮美術文化史論叢』(4282)에서 선비 항을 발췌한 것이다.

11) “睿王尤重儒生 每間歲親策賢良 先閱所納卷子 以知其才” 『破閑集』卷中

고 자연 속으로 귀의하게 되는데, 그가 자연에 귀의하게 된 동기는 물론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랐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친한 벗인 이자현의 영향이 컸다고 하겠다. 그가 이자현에게 지어 준 시 「贈淸平李居士」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淸平山水似湘濱	청평의 산수는 상빈과 같은데
邂逅相逢見故人	에서 뜻밖에 옛 벗을 만났네
三十年前同得第	삼십년 전에는 함께 과거에 뽑혔는데
千里外各棲身	천리 밖에서 제 각기 사는 신세
浮雲入洞曾無事	뜬구름이 골짜기에 드니 더러움이란 없고
明月當溪不染塵	밝은 달이 냇물에 비추니 티끌도 없어지네
擊目忘言良久處	눈으로는 보면서도 말이 없이 한참 있자
淡然相照舊精神	해맑게 서로 비추나니 옛날 그 마음

이 시를 보면, 한 인간이 욕망의 굴레를 쓰고 한없이 방황하다가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조용히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과연 자신의 마음 속에는 자연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와 동년 급제한 이자현의 생활을 보고 그러한 생각이 자리잡은 것이다. 이자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자겸의 사촌이다.

이자현(1061, 문종 15년~1125, 인종 3년)을 골짜기에 든 뜬구름이나 시내에 바친 밝은 달의 성질과 같이 더러움도 티끌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자현은 그의 나이 27세 때 벼슬이 太樂署丞에 올랐으나 喪妻하고는 벼슬을 그만 두고 멀리 떠나 청평산에 들어가 살았다. 그는 특히 선종의 설을 좋아해 학자가 찾아오면 함께 幽室에 들어가 말을 잊은 채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정좌하였으며, 때때로 古德의 중지를 담론했다. 이자현은 위의 광여의 시에 대해서 차운을 하여 시를 지었는데, 그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暖遍溪山暗換春	계산에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니 어느덧 새봄이 왔는데
忽紆仙杖訪幽人	갑자기 그대는 지팡이를 돌려 숨어사는 나를 찾아왔네
夷齊遁世惟全性	이제가 속세를 떠난 것은 천성을 보전하려 함이요
稷契勤邦不爲身	직설이 나라 일에 부지런한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네

奉詔此時鑄玉佩	조치를 받들고 온 이 때는 패옥이 쟁쟁하게 울리네 만
掛冠何日拂衣塵	어느 때나 벼슬 그만두고 속세의 티끌 떨치려는가
何當此地同棲隱	어떻게 하면 이곳에 와서 함께 살면서
養得從來不死神	종래의 불사신을 길러 얻어 보세나

이 시는 이인로의 『과한집』에 실려 있다. 따뜻한 봄날이 찾아옴과 동시에 갑자기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던 친 벗이 찾아왔다. 그것도 속세를 벗어난 한적한 곳에 살고 있는 시인의 거처에 오랜知己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입장은 사뭇 차이가 난다. 한 사람은, 즉 이자현은 伯夷 叔齊와 같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요, 또 다른 한 사람, 즉 꺾여는 바로 순임금 때 농사 일을 관장한 신하인 설(契)¹²⁾처럼 임금을 잘 보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시인의 심정은 어떠한가? 지금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 신하의 몸이지만 언제쯤 벼슬을 그만두고 속세의 미련을 버리려는가 하고 있다. 꺾여가 지금은 임금을 모시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과 같이 세속의 욕망을 초월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자현은 속세를 벗어나서 청평산 아래에 거처를 정해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식하여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괴롭히는가 하면 혼자 고귀한 척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은거를 표방하고 이름을 얻으려 했다는 말도 들었다. 그런데 이퇴계는 윤리를 저버리고 도가적인 은거를 싫어했으면서도 이자현을 나무라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¹³⁾. 그렇다면 당대에도 말이 많았을 터인데, 이자현은 그 대답이라도 하듯이, 가야산에 은거하면서 최고운이 지은 것같은 「樂道吟」이라는 시를 내놓았다.

家在青山岑	푸른 산 언덕에 있는 우리 집은
從來有寶琴	예로부터 귀한 거문고 있었지
不妨彈一曲	한 곡 켜는 것 개의치 않지만
祇是小知音	다만 그 소리 알아줄 이 드무네

12) 『書經』「舜典」을 보면, “순임금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물나니 禹야, 그대는 水土를 다스렸으니 이에 힘쓸지어다’ 하니 禹가 절하고 머리를 숙여 농사 일을 관장하는 설과 고요에게 양보를 했는데 순임금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너는 가거라.’고 하셨다(帝曰 兪咨禹 汝平水土 惟時懋哉 禹拜稽首 讓于稷契 暨臯陶 帝曰 兪 汝往哉.)는 말이 있다.

13) 조동일, 앞의 책, 같은 곳.

『靑丘風雅』(권6)에서는 起句의 '靑山'이 '碧山'으로, 結句의 '小'가 '少'로 되어 있다. 起句의 '靑山'과 '碧山'은 서로 바뀌어도 의미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겠으나, 結句의 '小'는 '少'로 해야 의미가 분명해진다. 먼저 첫 구부터 분석을 해 보기로 한다.

서정적 자아, 즉 이자현이 살고 있는 곳이 청평산 속에 있는 집이었으니, 바로 시인 자신의 거처를 말한다. 바로 이자현 자신이 아주 귀한 거문고를 하나 가지고 있다. 또 그 거문고를 한번 연주하는 것도 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옛날 중국의 백아와 종자기 같은 친한 벗이 드무니 그것을 어찌 했는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자현은 곽여와 같이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했지만,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한가로이 산수를 벗하며 살았다. 다시 말하면 바로 자연에 의지하여 생활했던 것이다. 그러니 인간적인 욕망, 즉 五慾과 같은 것이 보통 사람보다는 상당히 적었을 것이다. 자연을 벗어나서 거문고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고르고 있으니, 사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 자신이 처한 세계가 바로 仙境인 것이다. 이외에 이자현의 시로는 「永明寺」(平壤)가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佛宇相連舊帝宮	절이 옛 임금의 궁궐과 이었으니
松楸千古有遺風	솔과 가래나무 천고의 유풍일세
琉璃殿屋凝空壁	유리전은 하늘에 엉키어 푸르고
錦繡簾旌炤水紅	비단 장막은 물에 비쳐 붉네
夜靜船樸淸鏡裏	고요한 밤에 배들은 맑은 거울 속에 붙어 있는데
月明樓倚畫屏中	밝은 달 아래 누각은 그림 병풍 속에 의지했네

절의 크기가 임금의 궁궐과 같다고 했으니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첫째 구에서 우리는 절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그 큰 절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래 묵은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우거진 곳에 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장엄함이 배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조화로움은 어떠한가? 유리 같은 전옥은 하늘에 엉키어 푸르고, 비단 장막은 물에 비쳐 붉다고 했으니 上下와 靑紅의 서로 雙擬對와 反對를 이루어 더욱 빛을 내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보면, 고요한 밤과 밝은 달, 배와 누각, 맑은 물과 병풍처럼 둘러쳐진 암벽이 좋은 대조를 이루어 이 시 전체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여는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을 하는 동안 상당히 긴 세월(30년간)을 세속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그가 그의 同年인 이자현을 만나고부터 자신의 심경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바로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심정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이 처한 세계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일 때는 그 정도가 심해진다. 그러나 광여는 그가 벼슬을 하는 동안, 그것도 그가 예종을 모시고 있었던 동안은 그는 그가 처한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동년인 이자현을 만나고부터 자연에 귀의하고 싶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생각은 밖으로는 중국의 주나라 때의 백이·숙제나 진나라의 죽림칠현, 그리고 동진의 도연명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안으로는 신라의 최고운을 위시해서 광여 자신의 知友인 이자현에서 비롯하여 뒤이어 무신란기의 죽고칠현이나 조선 시대의 여러 은자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詩風과 그 影響

광여의 시는 唐詩를 바탕으로 했다. 그 가운데서도 晚唐詩風을 바탕으로 했다. 그 근거로는 제2항에서 언급한 「何處難忘酒」의 시 제목부터 벌써 당나라 시인인 白樂天의 것을 그대로 수용한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다음 항에서 논의하겠지만 시의 풍격이 만당기의 풍격과 더불어 음유지미를 띠고 있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광여의 시에는 간간이 초기 송시의 경향을 띠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광여가 당대의 시인을 계승한 것은 마치 북송의 시인들이 당대의 시인들을 계승한 것과 같다. 즉,

국초(북송 초기)의 시는 자연히 당대의 시인을 계승해 나갔다. 왕황주는 백락천을 배웠고, 양문공과 유충상은 이상운을 배웠고, 성문숙은 위소주를 배웠고, 구양공은 한퇴지의 고시를 배웠고, 매성유는 당나라 사람들의 평담한 곳을 배웠다. 동파와 산곡에 이르러, 비로소 자기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 시를 지어 당나라 사람들의 시풍이 변하게 되었다. 산곡은 용공을 더욱 심각하게 하여, 그 후에 그 법석이 나라 안에 성행

하여 강서종파라고 불리게 되었다¹⁴⁾.

이처럼 북송의 시인들은 처음에는 당나라 시인들의 시풍을 계승해 왔다. 당나라 시인 가운데서도 白居易 시를 가장 많이 따랐다¹⁵⁾. 그러다가 소동파나 황산곡에 이르러서 비로소 북송 특유의 시풍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글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송시 일대의 면목을 연 것은 매요신·소순흠 두 사람에서 시작되었다. 한위로부터 만 당에 이르기까지 시가 비록 변하기는 했지만, 모두 다하지 않는 뜻을 남기는 데에 이르렀다. 만당의 것도 마찬가지로 여지를 남겨, 다 읽고 책을 덮어도 읽는 이로 하여금 오래도록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¹⁶⁾.

송나라, 즉 북송의 시는 바로 매요신과 소동파가 처음 시작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을 두고 말하면 梅堯臣(1002~1060)과 蘇東坡(1037~1101)는 시기적으로 한 세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앞의 인용문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매요신이나 歐陽修(1007~1073)·林逋(967~1028)가 송시를 주창했고, 소동파와 黃山谷(1045~1105)에 이르러 본격적인 宋體가 나타났던 것이다. 다음의 「應製」라는 제목 밑의 다른 한 수를 들어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誰剪紅羅作牡丹	누가 붉은 비단 잘라 목단꽃을 피웠나
芳心未展怯春寒	아직 개화하지 않을 걸 보면 봄 추위 두려워서인지
六宮粉黛皆相道	여섯 궁의 궁녀들이 서로들 말하나니
何事宮花上道冠	무슨 일로 궁궐의 꽃이 도사의 관에 올랐는가

제목이 應製, 즉 임금의 명에 의해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에

14) “國初之詩 尚沿襲唐人 王黃州學白樂天 楊文公劉中山學李商隱 盛文獻學韋蘇州 歐陽公學韓退之 古詩 梅聖俞學唐人平淡處 至東坡山谷 始自出己意以爲詩 唐人之風變矣 山谷用工又爲深刻 其後法席盛行海內 稱爲江西宗派” 嚴羽『滄浪詩話』.

15) 繆鉉, “論宋詩”(宋詩鑑賞辭典, 上海:上海辭書出版社, 1994.7.7刷本), p.2.

16) “開宋詩一代之面目者 始于梅堯臣蘇舜欽二人 自漢魏至晚唐 詩雖遞變 皆遞留不盡之意 卽晚唐猶存餘地 讀罷掩卷 猶令人屬思久之” 葉燮『原詩』「外篇」(下)

대해서는 좋게 읊조리기 마련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起句부터 분석해 보기로 한다. 시인은 목단의 붉은 색깔을 강조하기 위하여 붉은 비단을 잘라 목단꽃을 만들었나 하고 먼저 물음을 던지고 있다. 목단꽃은 붉고도 화려하다. 송나라 때의 성리학자인 周簾溪가 ‘愛蓮說’에서 ‘목단은 꽃 가운데서도 부귀를 나타낸다(牧丹花之富貴者也).’ 고한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붉고 화려하기 때문에 검소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承句에서 보면, 그 붉은 비단과 같은 꽃이 아직 개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 개화하지 않은 모습은 마치 轉句에서 읊조리고 있듯이 궁녀들의 자태와 비슷하다. 꽃이 활짝 피면 희망을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궁녀들도 늙어 버리면 그 매력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꽃이나 궁녀나 아직 피기 전에 필듯 말듯하는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임금을 모시는 여섯 궁녀들도 당연히 나이가 들지 않은 이괄충춘일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따라서 꽃과 궁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이 시를 빛내고 있다. 그런데 결구에서는 어떠한가? 물론 전구에서 궁녀들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 듯하지만, 무슨 까닭에 궁궐의 그 아름다운 꽃이 도사의 갓 위에 꽃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바로 그 화려한 목단, 즉 부귀영화가 바로 관여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임금의 총애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의미의 새로운 창출 면에서 보면 송시의 한 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시 전체의 묘사 면에서 보면 이 시는 唐詩, 그 가운데서도 만당시의 華麗·浮薄함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와 송시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여러 문헌을 통해 종합해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唐代는 詩가 盛했고 宋代는 詩法이 盛했다.
- ② 唐詩는 主情의인데 반해 宋詩는 主理의이다.
- ③ 당나라 사람들은 詩로 詩를 지었는데 송나라 사람들은 文으로 詩를 지었다. 따라서 唐詩는 주로 性情을 표현해 내었고 宋詩는 議論을 陳述하고 있다.
- ④ 唐詩의 내면 세계는 興趣 爲主로 이루어져 있고, 宋詩의 內面 世界는 유취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 ⑤ 당나라 사람들은 光景을 기술하는 것을 좋아하여 그 시에 영묘가 많

고, 송나라 사람들은 議論을 세우기를 좋아하여 그 시에 鋪陳이 많다.

- ⑥ 唐詩는 感性的인 측면이 강하고, 宋詩는 知性的인 측면이 강하다.
- ⑦ 唐詩에는 詩의 自我가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데 비해, 宋詩에는 詩의 自我가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상을 客觀化시킨다.
- ⑧ 唐詩는 여러 가지 題材를 동원하여 정감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비해, 송시는 전대 한시에서 볼 수 없었던 題材의 다양성 議論化의 경향 平靜의 추구 등을 그 특색으로 들 수 있다.
- ⑨ 唐詩는 含蓄的인 면이 강한데 비해, 宋詩는 散文的이고 說明的인 성격이 강하다.

이상과 같이 당시와 송시의 차이점을 들어보았는데, 靑여의 시풍은 어디에 속할까? 위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靑여의 시풍은 대체로 晚唐風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는 송나라의 시풍을 따른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가 따르는 송시풍은 초기의 북송 시풍이기 때문에 만당기의 시풍과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초기 북송의 시인들이 그랬듯이 그는 당나라 시인들의 시풍을 따르면서도 그곳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靑여의 시풍은 자기 자신의 새로운 시풍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기법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겠다.

朱東潤¹⁷⁾은 司空圖의 24詩品 중 작품을 논한 것을 陰柔之美와 陽剛之美로 구분하고 있다. 즉, 典雅·沈著·清奇·飄逸·纖穠은 음유지미에, 雄渾·悲慨·豪放·勁健은 양강지미에 포함시키고 있다. 靑여의 시 5수를 두고 볼 때 주동윤이 구분한 양강지미에 속하는 것은 없다. 그 한 예로 조선시대 壺谷 南龍翼(1628~1692)은 靑여 시의 풍격은 ‘玄閑’¹⁸⁾ ‘하다고 했다. 아마도 호곡은 靑여의 시 가운데 그가 이자현에게 지어 준 「贈淸平李居士」라는 제목의 시를 이렇게 평했을 것이다. 또 지준모는 靑여의 「증청평이거사」와 「永明寺奉和御製」라는 시에 대해서 淸澹하다고 했다. 이처럼 남용익이나 지준모의 견해를 봐도 靑여의 시가 음유지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靑여의 시가 음유지미를 띠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靑여 자신의 성격을 한 번 살펴봐야 한다. 靑여의

17) 朱東潤, 中國文學批評大綱, (臺灣:開明書局, 1950) p.114.

18) 趙鍾業 編, 韓國詩話總編(3), (서울:東西文化院 影印本, 1989.1.) p.172.

성격은 강직한 것이 아니라 유순했다. 따라서 이러한 氣가 약한 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다른 이유로는 그 당시의 사회적으로 유행했던 시풍을 들 수 있다. 즉, 고려 초기의 시풍은 바로 신라 말의 시풍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강한 기운을 지닌 시를 창출할 수가 없었다. 또 光宗 9년(958)에 詩·賦·頌·策 등 한문학적 능력에 의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는 한문학의 진작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과거 합격을 위한 場屋文學은 이미 서궁과 이제현이 지적했듯이 극단적인 수사와 형식을 추구했던 부화한 당나라 과거문의 말패의 재현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의 시의 풍격은 그다지 강하지 못하고, 또 그 시격도 그다지 높지 못하다. 다음의 「淸謫閣親賜雙角龍茶」라는 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雙角盤龍入小團 쌍각의 용차울 소단에 담아 들여오니
蜀山新採趁春恨 촉산에서 새로 딴 잎 봄 추위를 쫓아내네
俄回御手親提賜 임금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것을 생각하니
露氣天香惹一般 이슬 기운 뛰어난 향기 함께 일어나는구나

이 시는 임금이 쌍각용차라는 좋은 차를 그에게 내려주자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시를 지어 화답한 것이다. 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감사의 정도를 넘어서 어찌면 아부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사실 임금의 하사품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지나친 칭찬은 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시를 보면, 강한 기운의 雄渾이나 豪放한 맛은 없고, 다만 부드러운 기운의 綺麗¹⁹⁾하고 纖穠²⁰⁾한 맛이 우러나올 따름이다.

19) 정신에 부귀 지니고 있어야/비로소 황금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질은 것 다 되면 반드시 매 말라 버리나/ 담담한 것은 더욱 절어간다/안개 남은 물가에/붉은 살구꽃 수풀에 들어 있고/ 달 밝은 화려한 집에/ 그림 베풀 다리 푸른 그늘지고/금 술잔에 술 가득한데/객을 짝하여 거문고 탄다/ 이에서 스스로 만족함을 얻고/진실로 아름다운 회포 다 퍼낸다// (神存富貴 始輕黃金 濃盡必枯 淡者屢深 露餘水畔 紅杏在林 月明華屋 畫橋碧陰 金樽酒滿 伴客彈琴 取之自足 良彈美襟, 詹幼聲, 司空圖 詩品 衍釋, (臺灣:仁愛書局, 1985.9.) pp.79~83. (번역은 李炳漢고 수가 「增補漢詩批評體例研究」에서 번역한 것을 그대로 따랐다.)

20) “물이 풍성히 흐르고/ 봄은 멀리까지 펼쳐 있는데/ 깊은 골짜기에 아리다운/미인이 때때로 보인다/ 벽도의 꽃나무에 가득하고/ 바람 있는 날의 물가/ 버드나무 그늘진 길 모퉁이에/ 형 갈차게 노래하는 피조리 많다/ 이때에 나서서 더욱 가면/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이 더욱 참되어 진다/안락에 다하지 않는 뜻을 가지고 하면/ 옛 사람과 함께 새로워지리라// (采采流水 蓬蓬遠春 窈窕深谷 時見美人 碧桃滿樹 風日水濱 柳陰路曲 流鶯比隣 乘之愈往 識之愈真 如將不盡與古爲新). 李炳漢, 위의 책 p.167, 詹幼聲, 위의 책, pp.74~78.

곽여의 세계관은 바로 초인문정신이다. 그의 시는 바로 이러한 초인문정신에서 창출되었다. 중국의 唐君毅는 超人文精神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내가 초인문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상의 것, 사람이 일반 경험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초월적 존재인데 말하자면 천도·신령·선불·상제·천사의 사상과 같은 것이다.”²¹⁾라고 하고 있다. 사실 고려 시대에는 물론 있기는 했겠지만 人文精神이 보편화하지를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나라 종교가 되었으며 기타 음양오행설·도교 등의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초인문 사상이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풍조는 郭興 자신에게도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근거로는 “그는 많은 책을 읽었으며 심지어 도교·불교·의학·약학·음양설에 관한 서적까지 모두 독파 … (중략) … 그는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고 그가 홍주에 있을 때 한 기생과 친했는데 그가 돌아올 무렵에 그 기생에게 약을 먹인 다음 신선이 되어갔다고 거짓말을 선포했다.”²²⁾는 기록으로 미루어 봐도 그의 정신 세계가 인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진다.

곽여는 초인문정신 속에서 그의 삶을 영위했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한 만당풍 내지는 초기의 宋詩風의 영향을 받아 그는 기가 그다지 않은 음유 지미를 지닌 시풍의 시를 창출했다.

7. 마 무 리

이상으로 곽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시를 고찰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곽여는 고려 예종 때에 주로 활동한 시인이었다. 그가 활동한 시대에는 한창 문풍을 진작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더욱이 사장을 상당히 숭상했던 때이다. 뿐만 아니라 임금과 신하들이 한데 어우러져 상당히 퇴폐적인 문풍이 왕성했던 때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유흥문학이 주류를 이

21) “我所謂 超人文的思想, 是對人以上的, 一般經驗理解所不及的超越存在, 如天道神靈仙佛上帝天使止思想” 唐君毅, 中國人文精神之發展, (臺灣: 學生書局, 1984.7. 第6版) pp.17 ~ 44.

22) 『高麗史』卷第97, 列傳 第10「郭尙」條 參照.

루게 되었으며, 광여의 시도 이 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광여가 그의 시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과 자신의 성격이 서로 결부되어 유흥문학이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광여의 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바로 시의 회화성에 있다. 한시와 동양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詩中有畫의 기법을 구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시중유화의 기법은 내적으로는 최고운의 「황산강임경대」 같은 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바로 중국의 王維가 창안한 문인화에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광여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고려나 중국 모두 문인화가 유행하던 때였다. 특히 고려는 초기부터 圖書院이라는 화공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었으며, 그 때의 임금이나 신하들 가운데 그림에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이 시중유화의 기법은 광여의 독창적인 기법은 아니지만, 시와 그림을 결부시키는 기법을 계승 발전시켰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광여의 시를 통해서 그의 삶을 조명해 볼 때, 처음부터 그는 귀소의지를 담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가 광여에 급제하고 삼십년간은 그는 세속의 富華함을 좋아했다. 그는 당시의 임금인 예종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그가 同年인 李資賢을 만나고부터 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자연에 귀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광여의 시풍을 한마디로 말하면 晚唐風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白樂天의 시풍과 비슷하다. 광여가 예종과 창화한 「하치난망주」라는 시의 제목도 백락천의 것을 그대로 따왔으며, 겉으로 드러난 제목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그 풍격도 닮은 곳이 많다.

한편 광여의 시에는 宋詩의 맛도 나기는 한다. 그의 시 가운데서 한 두수의 시에서 서술성이 돋보이는 면이 그렇다. 그러나 그의 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만당풍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시는 玄閑·淸澹하거나 華靡·纖縷한 맛이 난다. 이러한 시풍은 바로 중국 만당기의 시풍이었다. 또 광여가 활동했던 때는 아직 송시체가 한반도에 완전히 유입되기 이전이었다. 본격적인 송시풍의 작자인 蘇軾이나 黃庭堅의 시는 광여가 죽고 난 뒤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소동파집』이 광여가 생존했을 때는 간행되지 않았다.

또 광여의 시는 超人文精神을 담고 있다. 물론 그의 시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이러한 정신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광여의 세계관은 바로 초인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홍주 기생에게 신선이 되었다고

한 말이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곽여가 살고 활동했던 시기에는 불교나 도교가 유행했으며, 그 자신도 불교나 도교에 심취하였기 때문에 그의 시에서 초인문정신이 나타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당연한 사실이라 하겠다.

이처럼 그의 세계관은 초인 문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초인문 정신과 당시의 詩風 그리고 그의 부드러운 성격이 서로 융합하여 陰柔之美를 지닌 시를 창출했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본고를 끝내기로 하며 여기서 미진한 부분은 고려 시대의 시 전체를 연구할 때 보완하기로 한다(참고문헌은 각 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달지 않는다.).